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비치콘도 조성사업 본격화

여수·경남·광주MBC-광양경제청 투자협약 세계 최장 루프탑 인피니티풀 170m 조성해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에 세계 최장의 루프탑 인피니티 수영장을 갖춘 비치콘도가 들어선다. 여수시는 14일 전라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디오션리조트, 여수·경남·광주 문화방송 3사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대에 들어올릴 화양 비치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광양만권경제자유

구역청 상황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권오봉 여수시장, 디오션리조트 신달순 대표, 광주문화방송 송일준 대표, MBC경남 정대균 대표, 여수 문화방송 홍순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MBC 3사와 디오션리조트가 공동 투자해 여수시 화양면 장동 해수욕장 인근 7만 4000㎡ 부지에 1천617억 원을 들여 2023년

까지 274실 객실과 세계에서 가장 긴 170m 규모의 루프탑 인피니티 수영장을 갖춘 비치콘도를 건립한다. 여수시와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힘을 기울인다. 디오션리조트는 이번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디오션 컨트리클럽 9홀 추가 증설도 동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 화양 비치콘도 사업이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콘도가 완공되면 기업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 우리 지역 성장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경관으로 손꼽히는 화양면 장수리에 들어서는 비치콘도가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화양지구는 지난 2월 여수 화양과 고흥을 잇는 해상교량이 개통되고 2028년에 돌산에서부터 화양까지 11개의 다리로 연결될 예정이다. 화양 비치콘도를 비롯해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와 화양 웰리피크리조트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여수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오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상황실에서 열린 화양 비치리조트 건립 사업 투자협약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디오션리조트 신달순 대표, 광주 문화방송 송일준 대표, MBC 경남 정대균 대표, 여수 문화방송 홍순관 대표 등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보성군, 전 군민 무료 독감 백신 확보 완료

오는 19일 부터 접종

보성군은 전 군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신 확보와 국가예방접종이 재개됨에 따라 19일부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지소에서 일반 성인(19~61세)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보성군은 전 군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시행을 위해 「보성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29일 공포함으로써 행정 절차 준비도 완료했다. 국가사업 백신의 상온보관 사고 등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은 국가 무료 백신 대상자(생후 6개월에서 18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1만 9천여 명을 제외한 일반 성인(유료대상자, 19~61세) 1만 5천여 명에게 필요한

백신 확보를 완료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해 동시에 유행할 경우 대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 군민 무료 예방접종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지자체 여건 상 자주재원이 매우 부족하지만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일이라 다른 사업을 좀 밀려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보건소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백신에 대해서는 10월 7일 전량 회수 조치되었으며 자체적으로 확보한 백신은 적정온도 유지 등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지만 안전한 접종을 위해 예진 의사 1인당 1일 최대 접종 가능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건 기관 방문 전 예약 상담을 통해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성=김덕순기자



고흥 독도 · 울릉도 독도 학술용역 보고회

"울릉도 독도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 가져"

고흥군은 지난 14일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 학술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송 군수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동안의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호남대학교 이영민 교수는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의 연계성 조사, 고흥인의 울릉도 독도 개척의 역사 고증, 고흥군의 독도 장소마케팅 전략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했다. 옛 전라도인들의 울릉도 독도 개척사에서 홍양현(고흥군의 옛 지명)사람들의 역할을 주안점으로 두고, 고흥 나로도(봉래면) 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 역사문헌을 통해 옛 고흥선조들이 울릉도를 가게 된 목적, 고흥 독도에서 울릉도 독도의 명칭 유래 등이 역

사적인 사실로 고증되고 있다고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명했다. 송 군수는 "대한민국에서 울릉도 독도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고흥 독도가 울릉도 독도의 뿌리인 것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더 해달라"고 말했다. "울릉도 독도는 물리적인 거리와 기상 여건으로 건강한 성인들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며 "이번 학술용역을 토대로 고흥에서 울릉도 독도를 대신 체험할 수 있도록 고흥 독도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울릉군과 우호교류, 군민·공직자들의 독도 탐방 등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어나가고 있는 데 의미가 있는 보고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양시,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

오는 20일~21일 실시

광양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을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0월 20일(화) 오후 2시 농업인교육관, 21일(수) 오후 2시 진상농협 회의실에서 분산해 진행하며, 광양매실연구회, 광양백은산삼뿔배연구회, 광양참다래연구회, 광양블루베리연구회, 봉강부추작목반 등 GAP 신규인증 및 인증갱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후 등록한 다음 교육장에 입실하게 되며, 농산물우수관

리인증(GAP) 개요 및 필요성, 인증 신청방법 및 절차와 함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바로알기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김재복 매실원예과장은 "식중독 사고, 미생물·바이러스 감염, 중금속 함유 문제가 대두되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위해요소를 미리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GAP 인증 농가에 대해 1억3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검사비와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GAP 인증 스티커를 제작 지원해 소비자에게 인증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순천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순천시가 15일 오전 10시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제26회 순천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기념식 위주로 축소하여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내빈소개는 영상으로 간소화하고 어려운 시기에 곳곳에서 노력해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시민헌장 낭독과 2019년에 전국 공모로 선정된 새로운 순천시민의 노래가 발표됐다. 지난해 여순10·19항쟁 전국창작가요제 개최로 선정된 수상곡을 시민이 직접 부르는 여순항쟁 창작가요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여순10·19 특별법 제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여순10·19항쟁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